

연중 제3주일
(구라주일)

기도서 P. 335 C해

제1독서(느 헤 8, 2-4)
제2독서(고 린 전 12, 12-30)
복 음(루 까 1, 1-4. 4, 14-21)

숲 정이

발행인	김 환 철
인세인	김 불 회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감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①2935)

□ 강론



여러분 잠깐만!

권 이 복 신부

바빠다 바빠!

밤력을 시간도 잠잘 시간도 없이 허둥지둥 바쁘다. 그래서 기도할 시간도, 성당에 올 시간도, 묵상할 시간도 더더구나 내기 힘든 바쁜 세상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무엇 때문인가? 해답은 간단한 것. 더 많이 더 높이 더 넓게 가지고, 올라가고, 알리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넓게 자신을 P. R하기 위한 경쟁은 눈물겨울 정도로 치열합니다. 그것들의 본질이 열교자 하는 그것들이 진짜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세상이 그러니 나도 그렇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사람들은 굳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을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더 많이 벌면, 더 높이 올라 가면 행복해지리라고... 아무런 검토없이 별로 생각해 보지도 않고 세상이 믿으니 나도 믿고 있습니다. 굳게 믿기에 우리의 모든 정력을 거기에 다 기울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잠깐만! 잠깐만 싸움을 그쳐 주십시오. 더 많이 소유 하고 더 높이 올라가겠다는 싸움을 잠깐만 멈추고 세이 야기 좀 합시다. 두손을 한번 펴 보세요. 무엇이 있나요? 이번엔 머리를 흔들어 봅시다. 무엇이 들었습니까? 전강은 어떠십니까? 마음은 평화스럽나요? 거울속의 자신의 얼굴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 봅시다. 어느새에 많이 변했죠? 이렇게 되기 위해 텅 빈 손, 텅 빈 머리, 아프고 불안한 가슴과 주름진 얼굴을 갖기 위해 그토록 싸웠고, 또 싸우고 있습니까? 그토록 원하시던 그 좋은 것들은 모두 어디에 쌓아 두셨습니까? 많이 좋아졌습니까? 이제 이대로 살다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까? 세상

상은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죽지 못해 연명하고 있습니까?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란 희망 속에 살고 사는 존재라고. 내년이면, 내년이면...하며 죽어온지가 몇 삼년 일까요? 너무 오래 살아 살아온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천 이제 인간적인 것에 희망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용하다는 걸장이 쫓아다니다가 가산만 탕진한 어리석은 아낙네는 되지 않기로 했습니다. 행복이 저 산 넘머에 있다고, 내년에 있다는 말에 속아 방황하기를 이제 그만 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희망없는 인간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이기에, 희망없는 인간은 죽은 인간 가장 비참한 인간이기에 마지막 희망을 예수 그리스도 도께 걸었습니다. "예수는 부활했다"는 아무런 이익도

영광도 없는 말을 증명하기 위해 가장 고귀한 생명을 조개처럼 던져버린 순교 선열들의 말을 믿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자신의 증언이 진실되다고 신념과 확신속에서 외치는 누가복음 사가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굳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열망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갖 고통과 부조리에 얽매어 신음하고 있는 나를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방자임을, 그분만이 이 작은 가슴에 실망의 뜻을 박지 않을 분임을, 그래서 나는 기쁘다. 내결에 그분이 계시기에. 알렐루야



함께 웃자!

지난해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인도의 메레사 수녀는 만국 성체대회와 UN에서 이렇게 호소했다. -"만일 가난한 이들이 배가 고파 죽는다면 이는 하느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리고 내가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느님 사랑의 도구가 되어 그들에게 빵을, 옷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찍기 예수께서도 「가장 보잘것 없는 작은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음은 곧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가르치셨다. (참조 : 마태오 25장 41절 이하)

나의 손길을 기다리는 또 다른 나의 형제는 도대체 누구인가? 영혼이 병들어 썩어가고, 몸이 아파 고통을 받는 이들이다. 그들은 힘으로 부당하게 남을 억누르는 자들이고, 부정확한 방법으로 썩어 없어질 재물을 끌어 모으는 자들이다. 육신의 아픔때문에 눈물과 한숨으로 깊은 잠을 못이루는 자들이다. 또 있다. 한편에서는 먹을 것이 썩어나도 하루 세끼를 넘기기에 허기가 진 이웃들이다.

이 모든 이들에게는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다. 내일의 역사에 심판을 받게 될 어리석은 자들이 꿈을 깨도록 기도하자. 우리의 진정한 기도가 열매를 맺는 날에는, 노동자들의 권익옹호를 위한 노동운동을 한답시고 꺾꺾대며 여관방에서 1천5백만원이나 잃어버리는, 불쌍한 거지 운동가들의 굳게 얼어붙은 심장도 녹아날 것이다.

특별히 온몸이 썩어 문드러지는 나환자들에게 마음과 손을 내밀자. 성한 사람들이 눈을 돌려 버릴때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듯 아프겠는가? 내가 즐기는 담배 한 갑이 그들의 없어진 눈썹의 한 부분이 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는가? 나의 조그마한 정성이 일그러진 형제들의 얼굴에 웃음을 번지게 하자.

숲 정이 산책

힐있게 뛰십시오

관

전주교구

트

여성 7차
1.14 - 1.17

로

남성 13차
1.19 - 1.22

* 구라주일에

나는 무엇을 했는가?

□ 하필이면 문둥이의 딸로...

S는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더우기 그의 부모는 나환자였다. 그래서 일곱살때 그는 죄아닌 죄(?)때문에 정답고 따뜻하기만 했던 부모님과 생이별을 하고 어느 수녀원의 보육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졸업 후 그는 어느 청년과 교제하게 되었다. 서로는 진실하게 사랑했다. 자신이 나환자의 딸이란 사실때문에 불안과 슬픔 속에서 당황하던 S는 사랑하는 청년에게 사실을 고백했다. 청년은 더욱 S를 사랑하겠다고 맹서했다.

S는 자기 때문에 사랑하는 청년의 가정이 불화와 파탄을 당한다고 생각하여 비장한 결심을 하고 눈물로 얼룩진 유서를 썼다. -“내일이면 나는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그렇게도 나를 미치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도 다함께 사라지리라. 왜, 하필이면 문둥이의 딸로 태어났을까?.....”

자살직전에 청년에게 발각된 S는 목숨을 건졌다. -“부모가 나환자라도 무슨 상관이오, 나는 진실로 당신을 사랑하오 내가 있는 이상 당신은 결코 죽을 수 없오.” 진실한 사랑은 조건이 없는 것이다.

□ 나는 무엇을 했는가?

지난해 구라주일에 한국 천주교 1백14만2천여 신자들은 3천4백27만여원의 성금을 봉헌했다. 1인당 31원을 봉헌한 것이다. 가장 보잘것없는 형제(마태오 25장 절 이하)인 그들에게 베푸는 사랑이 전부 그것이었다.

우티 전주교구는 어떠했는가? 6만1천6백여명의 신자가 1백78만여원을 봉헌하여, 신자 1인당 겨우 29원을 봉헌한 셈이다.

나는 무엇을 했는가? 나는, 참말로, 사랑의 계명으로 사는 천주교 신자인가? 나병으로 고통받는 그리스도가 내 앞에 제시하던 나는 어떻게 하겠는가?

10년전에 마음씨가 예쁜 아가씨들의 움직임이 있었다. 나병으로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고 돌겠다는 「릴리회」가 바로 그것이다. 이들이 지난 한해에 거두어 모은 정성이 114만, 한국 천주교 신자들의 구라주일 성금을 훨씬 앞지르는 4천5백55만여원이었다. 아름답고도 값진 일이 아닐 수 없다.

□ 우리나라의 그들

나환자 수...6만여명(보사부 추정)
2만 8천여명(등록 환자)

2만8천여명의 반질 가량이 신체적인 불구나 교령으로 6개 불구환자 요양소와 94개 정착촌에서 자립생활 내지는 수용되어 보호받고 있다. 나머지 분들은 집에서 병원에 다니며 치료받고 있다.

□ 놀라운 현대 의학

현대 의학의 놀라운 발전은, 나병을 조기 발견하여 조기 치료만 하면 완치될 수 있게 했다.

초기 증세는 반점(斑點) 혹은 반문(班文) 등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경우 가려지 않고 감각이 둔한 것이 특색이다.

□ 단상 ②

문명(文明)의 이기(利器)

최 규 환(알벨도)

인류가 남겨놓은 문명의 이기는 날카로운 칼을 만들어 놓았다. 이 칼을 사용하는 것은 자기 그 방법에 따라 여러 형태로 다를 수 밖에 없다. 주부가 가지는 칼은 음식을 만드는 식칼로 사용되고, 의사가 가지는 칼은 병자를 수술하는데 사용되고, 도적이 가지는 칼은 강도로 변할 수 있고, 학생들이 가지는 칼은 연필을 깎는데 사용된다.

20세기의 지성의 고민은 이 문명의 이기를 어떻게 인류복지를 위하여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문명의 발달은 도덕적인 기초위에 세워져야 한다. 도덕적인 기초가 없는 문명의 발달은 인류의 멸망(자멸)을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신태인 사도회장)

□ 한국 가톨릭 나사업가 연합회의 1979년

한국 가톨릭 나사업가 연합회는 우리들이 봉헌한 구라주일 성금과 「릴리회」가 모아준 정성어린 헌금으로 지난 79년도에 다음과 같은 일을 했다.

1. 의료사업

- 눈썹이 빠진 환자에게 미모 이식 수술...340명
- 손발이 절단된 환자에게 의수족 제작...109명
- 생계가 어려운 극빈환자의 대수술 및 진료비 지원...108명

-손발의 하수, 깔고리손, 안면마비 등의 환자에게 정형수술...49명

2. 홍보사업

나병의 조기 발견, 조기 치료 및 나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나병으로 인한 불구 및 전염 예방을 위한 대중 제몽과 이를 위한 자료 제작 및 순회 제몽...95회에 걸쳐 28,710명에게 순회 제몽.

3. 교육사업

-40개 천주교 계통 정착장 주민의 신앙 재교육...34개 정착장 환자 424명에게 피정 및 공동체 목상회 실시.

- 행복한 가정운동...36개 마을에 가족계획 교육.
- 환자 자녀 교육지원...278명에게 교육비 지원.
- 정착장 주민의 자립정신 교육...650명에게 잠재능력 개발 교육 실시.

4. 자립사업

정착장 주민의 자립비 지원에 이어 생활이 어려운 재가(在家) 나환자 47명에게 자립비 지원...2천11만8천원.

- 생화·각종 화분·신부부케 전문·계대장식 유명강사 직접지도 꽃꽂이 회원모집
- ◇ 교우 여러분께는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진 선 미 꽃 집

전주주강 골목 전화 0921

범 띠도(덕배)·이 마리아

□ 일선에서 온 편지

국가의 안녕과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정 승 현 신부

+ 주의 평화

새해를 맞이하여 교형 자매님들의 가정에 거룩한 축복과 평화와 화목이 매일 증대하기를 빕니다. 추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경제사정마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 때 신앙으로써 이웃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품게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은 영하 10여도의 추위 속에서도, 정치 사회적인 어지러움 속에서도 의연하게 국방의 의무 수행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도와 회생으로 무장한 신앙의 군인들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가락지 목주를 열심히 굴리며 나라와 겨레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탄 자정미사를 봉헌하기 전에 부대의 성모상 앞에서 촛불들을 높이 들고 로사리오 기도 10,000단을 봉헌하였습니다. 봉헌문은 이러합니다.

「우리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죄인의 회심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전우들과 부대의 안녕을 위하여 티없이 깨끗하신 성모 마리아와 함께 로사리오 기도 10,000단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바칩니다. -1979년 12월 25일 보병 제15사단 신자장병 일동」

우리는 다시 로사리오 기도 30,000단 바치기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지향은 “국가의 안녕과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기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많은 분들과 많은 단체들께 일일이 감사의 서신을 올리 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순정이를 통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주안에 안녕히 계십시오. 1980년 1월 15일

“군인들에게 목주 보내기 운동” 중간보고

지난 10월 우리 교구의 군중 사제인 정승현 신부의 간곡한 편지가 있었다. 로사리오 성월을 맞아 “부대의 가톨릭 신앙 재건”을 위해 로사리오 10,000단 바치기 운동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 소식이 순정이에 알려지자 “뜻있는 착하고 아름다운 교우들”이 정성을 모아 주었다. 오늘까지 50여만원. 교구 평협이 순교자 현양대회를 기념하여 제작한 가락지 목주로 1,000개에 해당하는 성금이다. 이제 다시 30,000단 바치기를 시작했다 한다. 이 얼마나 호뭇하고 아름다운 일인가.

여러분들의 정성이 우선 정승현 신부와 엄기봉 신부에게 전달되었다. 앞으로 고경훈 신부, 성민호 신부, 양재철 신부, 박종근 신부, 박중신 신부에게도 목주를 보낼 예정이다. 계속되는 성원을 기대한다.

□ 군중 신부님들의 주소

- 고경훈 신부 (200 춘천시 효자2구 373-14 군중 사제관)
- 성민호 신부 (151 서울 관악구 대방동 380-1 공군본부 군중감실)
- 양재철 신부 (630-30 대구시 동구 효목동 212-13 군중사제관)
- 박종근 신부 (200-41 인제군 기린면 현리 천주교회)
- 정승현 신부 (200-21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 승리교회)
- 박중신 신부 (130-37 양주군 은현면 봉암리 173 군중사제관)
- 엄기봉 신부 (171 안양시 안양6동 551-1 천주교회)

□ 여성 여러분에게
벗을 선사합니다

송옥의상실

최춘자(로사리아)

(이시계점 옆)

전화 ③ 6219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엿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 픽업차로 신속배달, 가정방문으
로 점점, 교우님들 자주 찾아주세요

신진프로판가스상사

대표 최 안드레아
전주시 진북동 천변도로
전화 ③ 5448 · ③ 1071

로얄백화점 내
(삼화약국 옆)

백양 메리야스

직매점

채 순심(아비스)

표구, 서화, 병풍, 수예, 방석, 보로

문화양행

오 중 원(아오스딩)

팔달로 주택은행 맞은편 ③3170

☆교우님들 자주 들리세요

*교우 여러분에게는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시보당 금방

(금·은·보석·각국 시계)
주 미 황 수(바오로)

전주 남문 옆
전화 ③ 8188 (자 ③0369)

□ 타올, 보자기, 족석 인쇄
※ 교우여러분들의 협조바랍니다

송월타올

(남문영업부)

전주시 전동 3가 9

(전북은행 남부지점)

전화 ③ 2849 · ③ 5612

엄 판 설(베드로)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 오늘은 구라주일...오늘 헌금은 나병퇴치를 위해 쓰여집니다
- 1. 제 2차 공소(3·4·7지구) 지도자 피정...1월 28일<월> 오후 2시~29일<화>, 가톨릭 센터
 - ① 참가자...A. 3·4·7지구 해당 분당(용안, 함열, 화산, 고산, 삼례, 여산, 황등, 이리와 전주 시내 분당)
 - B. 1·2지구 공소 지도자 피정시 불참자(송정이 374호 참조)
 - ② 접수시간...28일 오후 1시30분~2시(※ 2시 정각에 시작)
 - ③ 1인당 참가비...전주시내(4천원), 군산·이리시내(3천5백원), 기타(3천원)
- 2. 제 1차 사도회 임원 피정...1월 31일<목> 오후 2시~2월 1일<금>, 가톨릭 센터
- 3. 전주교구 여성 7차(42명 수료)와 남성 13차(35명 수료) 꾸르실로, 성찰회에 마칠
협조해 주신 신부님들과 빨랑가를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꾸르실로 사무국

(중양)

전화 ③3651
3874

주임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태정현
사도 회장 김태현

- 1. 사도회 임원피정 : 1월 31~2월 1일 오후 2시, 가톨릭센터
- 2. 공소 지도자 피정 : 1월 28일~29일 오후 2시, 가톨릭센터
- 3. 제21대 중·고 학생 정기총회 : 27일 오후 1시 강당
- 4. 80년도 교무금 신입하세요
- 지난주 봉헌금 : 308,271원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김정원
보좌 신부 나준원
사도 회장 박준원

- 1. 사도회 월례회 : 오늘 저녁미사 후 상임위원들의 빠짐없는 참여를 바랍니다
- 2. 월례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회원님들의 빠짐없는 참여를 바랍니다
- 3. 구라주일 : 오늘은 13번째 맑은 나병환자를 위한 주일입니다. 불우한 나병환자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작은 그리스도를 알아봅시다
- 4. 복사단 모임 : 오늘 공식미사 후 부모님들과 복사들 함께 나와 주세요
- 5. 어머니 합창단 월례회 : 2월 1일, 어머니 미사후
- 6. 애령회 정기총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 7. 교무금 납부의 날 : 오늘은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79년도 교무금을 속히 완납하십시오
- 지난주 봉헌금 : 174,000원

(덕진)

전화 ②2182

주임 신부 서석오
보좌 신부 조정현
사도 회장 양상현

- 1. 진복회·부녀회월례회 : 빠짐없는 참석 바랍니다
- 2. 교무금 신입 아직 못하신 분 이달내에 해주세요
- 3. 공소회장 연수회 : 28일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4. 고등학생 1일 피정 : 많은 참석 바랍니다
- 5. 봉헌 봉투는 자기 것을 사용하십시오
- 6. 사도회 임원 피정 : 31일~2월 1일
- 7. 한마음회 : 군인을 위한 목주 8,000원 박신부님께 보냈습니다
- 지난주 봉헌금 : 268,665원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종택
보좌 신부 박성호
사도 회장 조성호

- 1. 사도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 2. 사도회 임원 피정 : 31일~2월 1일(1차) 유기준·이충원·유덕열·이기배·강기연
- 3. 구라주일 : 오늘은 구라주일 나환자들을 위해 기도와 특별 헌금을 합시다
- 4. 첫철례 7:2월 2일<토> 많은 참석 바랍니다
- 5. 예비자 교리안내 : 일요일 공식미사 후-히데레사 화요일 저녁미사 후-박신부
- 6. 중·고생 연수회 잘 마쳤습니다(21~23일)
- 7. 대학생회 :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30분 입학 예정자들 빠짐없이 나오시다
- 지난주 봉헌금 : 375,755원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함형수

- 1. 사도회 월례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있음
- 2. 구라주일 특별 헌금
우리 형제, 나환자를 위하여 특별한 헌금을 합시다
- 3. 애령회 기도 : 매월 4째 주일은 애령회 기도의 날입니다. 다같이 연령을 위한 기도 바치고 갑시다
- 4. 가정방문 : 제1반(1월 29~30일 양일간) 제2반(1월 31~2월 1일 양일간)
- 5. 교무금 신입 : 분당 유지에 차질없게 속히 신입하십시오
- 6. 미사시간 변경 : 중·고미사 오후 7시 30분에서→6시
- 지난주 봉헌금 : 137,860원

(송정미)

전화 ②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 1. 1월 27일 구라주일 : 불우한 나병 환자를 도와줍시다
- 2. 요안회 월례회 : 2월 29일 공식미사 후 이번 유사택 이용신 수고하시겠습니다
- 3. 거년도 봉헌금 약속하신대로 속히 납부 바랍니다
- 4. 사도회 월례회 : 2월 3일 공식미사 후
- 5. 신축기금 내 주신분 : 김정태(10만원), 백순자(1만원), 최부정(5만원), 중앙신자 홍실비아(15만원), 천누비나(20만원), 학생 조경애(2천원), 강호숙(2만원)
- 지난주 봉헌금 : 211,390원

(전동)

전화 ②3222

주임 신부 김기중
보좌 신부 김기중
사도 회장 유석중

- 1. 글라라 형제회 : 오후 1시 30분
- 2. 옥좌 207차 공개설
일시 : 1월 27일 오후 2시 장소 : 사제관 2층
- 3. 초 축성
2월 2일 초 축성 하실분은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4. 교무금을 빠른 시일내에 신입 하십시오
- 5. 중·고 학생 정기총회 : 2월 2일<토> 오후 2시 30분
- 지난주 봉헌금 : 310,107원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회장 채수현

- 1. 부녀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 2. 공소 지도자회 : 28일~29일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3. 레지오 마리에 연총 친목회 : 2월 3일 오후 1시 30분 레지오 단원들의 인사들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 4. 오늘은 구라주일입니다
정성껏 불우한 나환자들을 위해 기도와 성금을 봉헌 합시다
- 지난주 봉헌금 : 81,690원 어린이 헌금 : 4,360원
교무금 : 45,500원